

Helga Picht

헬가 피히트

독일

2002년 6월 15일

박경리와 세계 문학

박경리씨는 1990년대초에 원주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어문학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를 주었다. "체계적으로 독서하는 것은 학문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것일 겁니다... 문학도에게 주는 충고중에는 독서를 많이 하라는 조항이 반드시 끼어듭니다.... 왜냐하면 독서를 많이 하지 않고 문학에 뜻을 세울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또 문학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며 느끼는 것이며 판단하는 것이며 온갖 것이 다 널려 있는 세상을 보는 눈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독서라는 것도 그것에 준해야 하며 소설을 쓴다고 해서 소설만 읽고 되는 것도 아니며 좁은 통로로 지나가기 보다 넓은 벌판이 소설의 현상이지요. 내가 한 작가로서 어떻게 독서를 해왔는가 그 경험담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식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며 자기 식대로 해야 하는거지요." (3, 305?306 페이지)

본인은 박경리씨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 동감하는 것과 함께 주로 젊은 사람이 독서를 하면 반드시 자기식대로 해야한다는 충고를 먼저 강조하고 싶다. 그것은 박경리씨의 인간사상과 문학개념과 관련된 것인바 그분이 "문학은 사회문제, 철학, 역사, 경제, 정치,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문학이란 삶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수학의 공식과 달라서 문학은 방향이며 추구이며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3, 12 페이지)라고 늘 지적한다. 이러한 모양으로 주고 문학을 하는 사람의 개성을 고려하기를 주장하면서 박경리씨는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걸어온 자학(自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전달하였다.

원래 소설 문학을 애독하는 학자인 본인은 1990년대 초부터 현대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하게 되었으며 선택을 잘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 현대 문학사에 많은 주의를 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김윤식, 김병익, 백낙청, 권영민 평론가들이 쓴 한국문학사와 관련한 책과 논문을 읽은 결과로 박경리 창작 활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대하 소설 "토지"를 애독하였으며 1997년부터 독일어 번역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토지" 독일어문 1 권은 (한국어 원문 1 권, 2 권, 절반) 2001년에 발간되었는데 2 권은 (한국어 3 권까지, 즉 1 부) 지금 인쇄하는 중에 있다. 동시에 본인은 박경리 창작 연보, 인간 및 문학 사상을 공부하고 1964년작 "전쟁과 시장"을 번역하였으며 그 책도 금년에 독일어로 발간되기가 예정되어 있다. 내가 왜 "시장과 전쟁"을 동시에 번역하였는가 하면 "전쟁이 인간의 집단에서 빚어지는 가장 큰 비극" (1, 21 페이지)이라는 박경리씨의 경계는 21세기초에 한국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독일인과 전세계 민중들에게 전달하여야 할 명구로 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번 학술토론회 주제 "한국 문화와 세계문화"라는 것은 본인을 크게 도전하였으며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게 하였다. 즉

1. 세계 문학에서의 박경리 문학의 위치
2. 세계 문학에 대한 박경리씨의 입장

첫째로 박경리 작품들은 세계 문학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초보적으로나마 답변하기로 한다. 박경리 문학과 특히 "토지"를 전공하는 최규찬은 "토지"는 "한민족의 해방 역사를 그리고있는 작품" 이며 "한민족의 위대한 서사시"로서 "인간의 보편적 삶의 진실을 기록한 점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단순히 제 3 세계 문학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하는 것도 아니고...동양과 서양, 고전과 현대, 보수와 진보를 조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빨짜크 '코메디

휴매느'와 솔로호프의 '고요한 돈강' 처럼...스스로 당당한 세계 문학인 것이다" (5, 13 - 15 페이지) 라고 지적하였다. 다른 권위있는 학자와 평론가들은 "토지"를 "현대 한국 문학의 등대" (김윤식), 80 년대의 "가장 우수한 대하 소설중의 하나" ("one of the best examples of the trend toward epic works" 김병익: 7, p.46) 혹은 "한국 민족어의 보배" 그리고 세 가지 철학적 원칙 즉 인생의 가치,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과 창조력인 사랑을 내용으로 가지면서 인간 생활을 질문화 한다고 (정현기: the treasure trove of the Korean national language, three basic philosophical principles, questioning of humanity's fate, dignity of all living things, love is creation - 7, 47-50pp) 강조 하며 "Who is who in Korean Literature"는: "The author aims at portraying in depth the ethical, psychological, and fatalistic dimensions of human life" (8, 403 p.)라고 지적한다. 이 결론을 독일과 유럽에서 오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세계 문학의 정의와 대비하면 박경리 문학이 세계문학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가장 유명한 백과 사전은 Brockhaus 에서 고전 작가 피테에 근거하여 세계 문학 이란 "민족문학은 세계사람들이 상호 문화교류를 통하여 서로 가까워지는데 응당하게 이바지하는데 이상으로 시대의 자연과학적이며 사회적이며 역사적 지식을 살리며 공동세계의 위대한 과업을 포괄적으로 밝히면 세계 문학으로 된다" (9, S. 661)고 해명하고 있다. 앞으로 "토지"를 번역하는 과정에 이러한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이만하겠다.

본인은 이번에 박경리의 여러 산문집과 강의 노트(1, 2, 3, 4)를 독해한 후에 박경리씨가 "자기 식대로" 다른 나라 문학을 어떻게 독서 접수하였는가에 대하여 몇 고찰을 하겠다.

박경리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내 독서는 아주 어릴 적에 시작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넘쳐흐를 만큼 많은 이야기 때문이지요.... 어머니 뿐만 아니라...글을 읽을 줄

몰랐던 친할머니는 책 읽는 사람들 데려다놓고 반 가는 줄
모르게 책을 읽히곤 했는데 그럴 때면 일하는 사람과 며느리인
어머니를 불러들여 책 읽는 것을 듣게 하였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강의 노트 306 페이지) 한국에서 자라나지 않은 외국
학자인 본인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감명되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명한 작가뿐만 아니라 지식인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친할머니" 한테서 독서를 배웠다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모양으로 박경리씨는 어릴적부터 한국의 고전
소설 "옥루몽", "조용전", "대봉전"과 "숙영낭자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 소설들은 이모저모로 중국 고전 문학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세계 문학의 일부분을 접촉하게
되었다. 본인은 이 문제를 왜 강조하는가 하면 유럽에서 보통
세계문학이라고 할 때에 유럽중심주의를 발휘 하면서 중국
문학을 비롯한 서양 아닌 문학을 념두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인은 박경리씨는 다른 한국 지식인들처럼 중국 문화
유산을 받아드림으로서 세계문학으로 가는 첫걸음을 걷지
않았는지 한다. 그것을 고려하면 박경리씨는 자백서인 "Q
씨에게" 산문집을 썼을때에 중국 현대 문학의 희극적이면서
비극적인 루신의 "Ah Q" 주인공을 수취인으로서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박경리씨는 보통학교에 입학한
다음부터 자립적인 독서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일제시대여서
물론 일본말로 된 책들이었는데 이것은 20 세기 전반에 작가로
대두한 한국 문인들의 특징으로 된다고 본다. 동독 출신인
본인은 1950년대 말부터 북한에서 발표한 자료에 근거하여
20년대 프로레타리아 작가들의 생애와 창작을 연구하였다.
1959년에 평양에서 발행된 "작가 수업"에서 이기영, 한설야,
박관양, 송영을 비롯한 가장 유명한 월북 작가들 다 독서가
일본말로 된 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그세대 - 자주 전후세대라고 - 하는 작가들처럼 박경리씨도
"철두철미 반일 작가다"고 지적하고 젊은이들에게 오늘 반드시
일본 대중 문화를 맹목하지 말라고 경계한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가 그들과 같이 빈곤하지 않았고 그 시절까지만 해도 조선

민족은 비록 강압에 의해 나라는 잃었으나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만은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309 페이지)" 고 보충합니다. 본인은 일본 문화가 빈곤하는가 한국 문화가 풍부스러운가를 판단하지 못하지만 일본 문화 영향에 대한 한국 전후 세대 지식인들의 모순적 입장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말을 인용한다. 동시에 박경리씨가 하는 것처럼 일본 평론가 가와무라 (川村溪)의 말을 인용하고 싶다:

"박씨는 8.15 광복 이후 처음으로 한글을 배웠고 한국어에 의한 문장을 배우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말을 했다. 일본어로 문장을 쓰고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는 단계를 거쳐 겨우 한글로써 생각하고 한글로 문장을 쓰게 되었다. 결국 그녀들의 세대의 반일은 마치 자기 육신을 찢는 것과 같은 과정에서 길러진 것, 바로 그것이다. (307 페이지)"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박경리 세대의 한국 지식인들은 반일 사상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일본말로 번역된 선진 나라들의 문화 정신을 배우는 것은 세계 문학으로 가는 둘째 걸음으로 되지 않은가 한다. 본인은 다음에 박경리씨의 외국문학의 창조적 수용에 대하여 말하면 이 두가지 모순투성이의 사회 심리적 문제를 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한다.

위에서 말한 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하면 중국과 일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나라 문학이 언급하는 바가 있다:

러시아(Dostojewski, Gontschrow, Tschechow, Scholochow 등등), 미국(Faulkner, Wolfe, Hemmingway), 프랑스(Flaubert, Balzac, Baudelaire, Maeterlinck, Malreaux, Sartre, de Beauvoir, Mauriac), 영국(Shakespeare, Dickens, Orwell) 독일(자료에는 철학자 Schopenhauer 와 음악가 Beethoven 밖에 없는데 면담에서 주로 Heine, Hermann Hesse 를 제시), 노르웨이(Ibsen, Hamsun) 인데 동시에 세계 문화 즉 주로 기독교, 고대 회랍과 이집트에 대한 것이다.

내용상으로 보면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 문학과 문화에 대하여 말한다:

- 인간상 문제 즉 개체와 총체성 사이의 관계, 개인의 고독, 병과 죽음, 내면 감정 세계, 연민과 고통, 인간의 창조력과 인사불성(人事不省), 기아와 빈곤, 노동과 정신 사업, 인간인 여성 역할

- 작가역할 및 가치관 즉 작가와 주변 세계, 자유와 실존주의, 허무주의 및 (무정부주의를 포함한) 공산주의, 부처 및 예수를 비롯한 종교적 인도주의, 물질적 부와 인류의 미래 본인은 그 모든 문제를 이 발표문에서 토론할 수 없다고 양해하시기를 바라면서 세가지 문제만 구체적으로 제기하겠다.

1. 사회 자유, 개인 자유와 작가 자유

2. 인간인 여성의 역할

3. 현존 물질적부와 인류 전망

1. 사회 자유, 개인 자유와 작가 자유

"Q 씨에게"는 자유 1, 자유 2 와 자유 3 이라는 수필이 (73-83 페이지) 수록되어 있다.

자유 1 은 "벌써 오래전에 빛깔이 낡아버린 것 같으면서도 많은 여백을 남겨놓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지금 오늘날에서도 ... 수많은 피로 물들어있는 것입니다"라고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진다:

"... 아무것도 나를 구속하지 않은 자유, 내 마음에 평화가 오기는커녕 미쳐버리거나 앓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지상이 낙원이 되기는커녕 지옥을 연상하게 됩니다...부모도 형제도 벗도 등을 돌리는, 아무에게도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어떤 일에도 유대를 갖지 않은 오로지 그 혼자 서야만 하는 형벌, 그 형벌이 얼마나 가혹했던가를, 갈망하는 자유가 완전한

자유로 허용되었을 적에 그 순간부터 자유는 형벌로 둔갑한다는 사실, 여기에 자유가 지니는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자유를 절대화하면 안되며 절대적 자유는 갈망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작가의 자유와 관련하여 본인이 읽은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다.

"문학에서의 자유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창작을 하는 작가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이며, 다른 하나는 작품속에서 움직이는 인물의 자유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곳에 작가의 자유가 존재할 까닭이 없습니다" 강조한 다음에 한국의 작가는 거의 육이오라는 비극의 바탕위에서 국토가 분단되고 민족이 서로 등을 돌리는 아픔을 지니고 있으면서 50/60년대 즉 이승만 통치시대를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그 오류에 찬 권력에 협조하지 않고 적극 참여하지 않는 자유를 누릴수는 있었으나 우리는 그것을 고발하고 그릇된 사회를 여실히 그려낼 자유까지는 향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침묵할 자유는 있었지만 소리칠 자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구상 어느곳에서도 20세기 역사의 특징 하나인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의 투쟁을 의식적으로 체험한 사람에게 다양한 사색을 일으킬 것이다.

2. 인간인 여성의 역할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박경리씨는 여성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여성운동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 희극 작가 Ibsen의 여성극 "노라 혹은 인형의 집"과 "유령" ("두 여인상", 1, 42-53 페이지)을 읽으면서 여성문제를 성(性)의 문제로써 보지 않고 일반적인 인간간 관계 문제로 본다는 사실은 가장 재미나는 내용으로 된다.

박경리씨는 사르트르의 반려 보봐르 여사가 여러 남류 작가들의 반여성주의를 너무 신랄하게 규탄한다는 것을 "조금은 반감도 느꼈다"고 하면서 "이런 빛깔의 기분은 결국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로 끌고 가고 싶다"고 한다.

"그것은 근원적인 인질로 말미암은 비극이기 보다 이질로 하여 밀착을 갈구하는 숙명에서, 그 갈구가 크면 클수록 타인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고독과 서로 이해도지 못하는 고통이 심화 되어 비극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 이를테면 "몽테를랑의 소설속에 나온다는 우매하고 이기적인 모친의 상(像)을 부친의 상으로 대치한대로 비극의 농도가 별로 줄어드는 것은 아닐겁니다."

"인형의 집"의 주인공인 노라가 낡은 사슬을 끊고 남편과 집을 떠난바 약속된 미래가 없어서 지극히 용감하게 행동하였지만 "유령"의 주인공인 알빙부인은 "노라와 달리 자기 자신을 개조해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알빙 부인의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과 삶을 긍정하는 마음, 부정하는 마음의 암담한 싸움이 계속되고,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는 한 여성으로서보다 인간으로 짊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숙명을 보게 되는 것이다."

"알빙 부인은 마치 고행으로 찍어낸 것 같은 도덕과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또한 일면에서는 인간적인 것과 자유를 갈구하면서 유령에게 쫓겨가는 여자, 육(肉)의 사나인 남편 알빙씨와 영(靈)의 사나인 목사 만델스는 그러나 그들의 범죄에서는 동일점이 있고, 알빙부인의 인간이고자 한 분신인 오스왈은 (아들) 태양을 달라고 외치며 죽었는데, 이 비극의 절정에서의 알빙 부인에 비하면 노라의 비극은 하나의 걸핍기 같은 것이였습니다.... '유령'은 여자의 비극이기 보다 인간의 비극이였습니다."

박경리씨는 이러한 해설로 해방 문제를 고립되어서 보지않고 인간 해방 문제의 일부분으로서 제기한다.

3. 현존 물질적부와 인류의 전망

주지하는 바와 같이 80년대 후부터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세아에서도 자연과 역사에서의 인간위치 그리고 지구촌에서의 인류전망에 대하여 큰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박경리씨가 토지 문화관 창설과 관련하여 토지와 인간사이의 관계,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사업의 불가분리 변증법적 동질성 그리고 전망 사상 개조에 대한 주장에 주의를 들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박씨는 "작가는 왜 쓰는가" (4, 249-261 페이지)에서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라는 명제로부터 출발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론 수많은 생물중에서 유독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성으로 하여 역사가 쌓이게 되고 계속 인류가 발전해온 것은 사실입니다....개체와 총체가 불가분의 관계라면 자연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였을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미 병들었습니다. 생명의 본질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 삶의 순간을 위한 안락(편리) 때문에, 지칠줄 모르는 욕망 때문에 자연은 병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근본 원리의 추구, 합리적 규범을 설정했다면 이제는 원리에 대한 새로운 방법의 선택도 수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잊어서 안 될 일은 생산고 만큼, 부를 축적하는 만큼 지구는 망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력으로 공기를 살 수 있겠습니까? 경제력으로 오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력으로 뚫어진 오존층을 꿰뚫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기한 후에 "장사하기 위한 불필요한 것의 생산고를 낮추어야만 인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고 요구합니다.

본인은 여기에서 박경리씨의 몇 가지 명제만 소개할 수 있었다.

위에서 발표한 것은 하나의 시작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유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이상으로 박경리 문학 활동과 인간사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었으면

만족하겠는데 이분의 문학과 사상세계는 세계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토지"를 비롯한 작품을 읽으시면 더 잘 이해하시리라고 굳게 믿는다.

9. 참고자료

1. 박경리 산문집: Q 씨에게, 서울 1995
2. 박경리 원주 통신: 꿈꾸는자가 창조한다. 서울 1994
3. 박경리 강의 노트: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서울 1995
4. 박완서의 17 인: 수정의 메아리, 박경리의 삶과 문학, 서울 1995
5. 최규찬: '토지'를 읽는다. 서울 1996
6. 작가 수업, 평양 1959
7. KOREANA, spring 1995
8. Who is Who in Korean Literature, Seoul 1996
9. Literatur Brockhaus, III, Mannheim 1988
10. Goethe: Schriften zur Weltliteratur, Frankfurt a. Main 1987
11. Pak Kyongni: Land 1, Osnabrueck 2001
(Herausgegeben und uebersetzt von Helga Picht)